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31)

## 순적지쾌(順適之快) 자기에게 순종하고 맞춰 주면 즐겁다



권 중 달(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사람이 자기 밑에 수하를 두고 일을 하게 될 적에 마치 입안의 허처럼 제대로 말을 잘 들어 준다면 기분이 좋다. 그래서 약식빠른 사람은 윗사람의 눈치를 잘 보고 미리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큰 보상을 받는다. 특히 최고 권력자인 황제에게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이다. 황제의 마음에 드는 것이 곧 출세의 길이기 때문이다.

보통 그런 사람을 역사에서는 간신(姦臣)이라고 하는데 황제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면 나리를 망쳐 먹는다. 그래서 제대로 된 황제라면 혹 눈치를 보아가며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보다는 잘못을 지적하며 간언(諫言)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바른 정치를 하려고 한다. 역대 제왕 가운데 정치적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대개는 이처럼 간언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사람이었다.

당(唐)의 현종(憲宗)은 역사에서는 그가 사용한 연호인 원화(元和)라는 말을 이용하여 원화중종(元和中興)이라는 말을 불리고 있을 만큼 왕조를 중흥시킨 황제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안사(安史)의 난으로 기울어진 당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했다는 평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등극하는 과정은 반드시 순탄하다거나 정도(正道)를 걷지는 않았다. 그가 탄생한 것은 안사의 난이 일어난 지 3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러하니 그의 증조부인 대종(代宗), 조부인 덕종(德宗), 아버지인 순종(順宗)의 치세는 전란의 후유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안사의 난을 진압하기에 급급하였던 당왕조는 누구든 군사를 만들어 안사의 세력과 대항하게 하는 정책으로 안사의 난을 극복하려 하였고, 그 때문에 결국 각지에는 군벌들이 생겼다. 그러나 이들은 처음부터 국가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군사를 키웠으니 계속하여 조정에 대하여 반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중앙정부인 황실입장에서는 이 군벌들의 세력을 줄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조부인 덕종은 이를 지방 군벌을 줄이려고 하였다가 오히려 이에 반발한 경원(涇原)의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황실의 권위는 말이 아니었다.

게다가 안사의 난 때에 현종(玄宗)은 사천으로 도망하고 그 아들인 숙종(肅宗)이 아버지 현종의 생사를 알길 없자, 환관에 의하여 황제에 즉위하였고, 환관에 둘러싸여 전쟁을 지휘하는 바람에 환관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져 있었다. 그러한 환관의 정치적 위상은 현종의 아버지 순종 때까지도 여전하였다. 군벌과 환관이라는 두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당황실의 권위는 형편없었던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종이 즉위하자 왕숙문(王叔文), 위집의(韋執誥), 유종원(柳宗元), 유우석(劉禹錫) 같은 사람들이 개혁정치를 내세우며 환관세력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혁세력에게 불만을 품은 구문진(俱文珍), 유광기(劉光琦) 등의 환관세력이 중풍(中風)을 앓고 있는 순종을 압박하여 현종에게 양위를 하게

하였으나 그의 등극은 자연스럽지 못하였다. 말하자면 환관이 정치적 승리 속에서 환관에 의해서 현종은 등장한 것이다.

게다가 현종의 아버지 순종은 상황(上皇)으로 있다가 얼마 안 가서 죽었다. 공식적인 발표와 종풍이 들었으니까 병사(病死)했다고 했지만 애사(野史)에서는 환관에게 모살(謀殺)되어 죽었다고 하고 있으니, 현종은 황제로서 그리 멋진하지 않게 자리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풍으로 고생하는 아버지가 환관에게 모살된 것이 사실이라면 자기 치하에서 벌어진 일이니 불효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역사에서는 당(唐)왕조의 중흥의 황제로 추앙받는 것은 무엇일까? 간관(諫官)의 충언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간관의 역할에 관하여 현종에게 일깨워 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원진(元稹)이었다. 그는 현종에게 말하였다. “예전에 태종은 원규(王珪)와 위징(魏徵)을 간관(諫官)으로 삼고, 연회와 놀이, 잠자고 밤 먹는 곳에서도 좌우에 두지 않은 적이 없었고, 또 3품 이상의 관리에게 명하여 들어와 큰 정사를 논의하면서는 반드시 간관 한 사람을 파견하여 따르도록 하여서 득실(得失)을 헤아리도록 하였으니, 그러므로 천하가 크게 잘 다스려졌습니다.”라고 하였다.

누구나 다 위대한 황제로 일컫는 당태종이 간관을 얼마나 중시하였는지를 설명한 것이다. 이 말의 뒤에는 황제를 규간(規諫)하는 간관이 황제의 곁에 머물게 하였다는 것이 태종이 훌륭한 군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로 꼽고 간관을 항상 옆에 두라는 것이다. 국민에게 다가오는 간신은 국민을 속이는 사람이다.

뒤를 이어서 원진은 현종시대의 간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지금의 간관은 대부분 불려서 알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고, 다음에는 시정(時政)을 논의하는 곳에 참여할 수 있으며, 늘어서서 열을 이루고 조정에서 알현할 때입니다. 근년 아래 정아(正牙, 宣政殿)에서 일을 상주하지 않고 여러 관료들이 돌아가면서 황제를 면대하는 것을 철폐하니, 간관이 직책을 들어낼 수 있는 사람에게 오직 고명(高命)이 내렸는데 편리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글을 적어 봉합하여 봉사(封事)를 올릴 뿐입니다.” 이 말은 명목상 간관은 있지만 황제가 이를 가까이 하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황제가 올바른 말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고, 이 말은 바로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알아들을 만도 하겠지만 현종은 이 말으로 그리 쉽게 정치의 도리를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러자 원진은 다시 상소문을 올려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당태종이 등극하고 얼마 안 되어 그가 좋아하는 사냥을 나가려고 하자 손복가(孫伏加)가 이를 저지하였던 일을 거론한 것이다. 황제가 사냥 나가는 것은 딱지이며 하찮은 일이지만 이를 저지하는 손복가의 간언을 듣고 나서 태종은 상(賞)을 내렸던 예를 든 것이다. 이는 간관들이 태종에게 간언을 하였다가 설혹 뜻에 맞지 않아서 별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없게 하려

한 것이다. 즉 태종은 간언하는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언이라는 것을 대부분 황제가 하려고 하는 일을 거역하여 막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보면 이렇게 간언하는 문을 활짝 여는 것이 당태종에게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보탠다. “태종이라 하여 어찌 뜻을 거스르는 것을 좋아하고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였습니까? 진실로 순종하여 그에게 맞추어서 얻는 즐거움은 작으나 위태롭고 망하게 하는 재앙은 커 때문이었습니다.”

당태종도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 뜻을 거스르는 사람을 좋아하거나 자기에게 순종하면서 뜻을 맞추어 주는 사람 싫어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맞추어 주는 것에서 얻는 즐거움은 적지만 그 때문에 닥치는 재앙은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말을 들어서 일까? 현종은 등장할 때는 석연치 않은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간언을 수용했는지 그 후에 조정에 복록하는 변진들을 토벌하여 평정하고, 변진이 할거하던 상황을 종결하여 원화중종을 이루어 안사의 난 후에는 가장 훌륭한 군주로 평가 받았다.

옛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이나 자기를 나무라고 자기의 뜻을 거역하여 말하는 것은 실제로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를 허락하여 수용하기란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간언을 가감 없이 받아들였던 당 태종도 좋아서 간언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자기를 거스르는 것이 좋지 않아도 간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그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더 크게 잃는 일이 벌어질 것을 알았고, 그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입안의 허처럼 잘 돌아가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달콤함은 속임수인 것을 안 것이다. 그래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으니 엄격히 세우고 역사에 명운으로 남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즈음은 이른바 민주국가에서 과거에 황제가 앉아 있던 자리에는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잘 되려면 국민이 간신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간신에게 속았다가는 나라가 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하는 누구인가? 공직자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공직자 가운데 간신 같은 사람을 걸러낼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다가오는 간신은 국민을 속이는 사람이다.

특히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속이는 일은 공직자가 되고자 선거에 나와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할 때 국민을 혼혹시켜 속임수를 쓴다. 온갖 달콤한 목소리로 자기가 당선이 된다면 그 국민전체를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처럼 입안의 허처럼 국민을 농락한다. 지난번 선거에서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멘트 말로 국민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하지만 그런 정부 아래에서 터져 나오는 그 반대 현상을 보면 바로 투표하여 뽑아준 국민은 속은 느낌을 저 버릴 수 없다.

결국 과거에는 나라란 황제의 나라이으니까 황제가 속지 않아야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이니까 국민이 간신 같은 정치인들에게 속지 않아야 하고, 뽑아 달라고 하는 걸만 번드르르 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이러할 때에 간언(諫言)을 할 간관(諫官)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간신을 나무라고 국민에게 정신 차리라고 외치는 선각자들이 아닐까? 전에는 그래도 나라의 어른이란 사람�이 이 선각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옛날의 간관에 해당하는 선각자, 어른의 목소리는 점점 찾아들고 있는 것 같다. 어리석은 황제처럼 간신 같은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속은 국민이 되면 안 될 터인데 걱정이다.

##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회장

### 대한민국농구협회 회장 당선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회장(사진원쪽)  
이 대한민국농구협회의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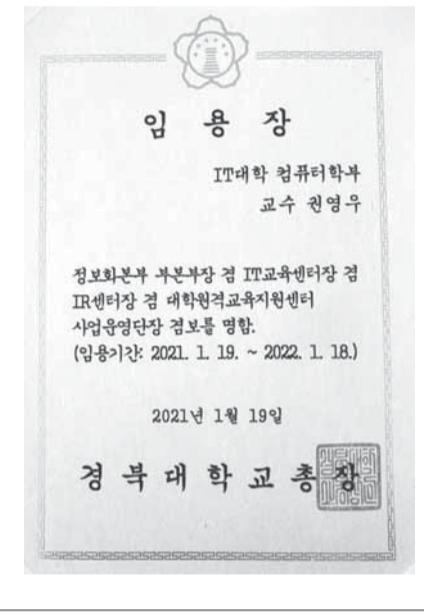
권혁운 회장은 회장 선거 후보자에 단  
독 입후보하여 선거를 치르지 않고 협회  
정관 및 회장 선거 관리규정에 따라 당선  
이 결정됐다.

권혁운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4년까  
지다.



## 권영우 경북대 교수 IT교육센터장 등 4개 보직에 임용

권영우 교수(權永祐, 복야공파 36세)가 경북대학교 정보화본부 부분부장을 비롯하여 IT교육센터장과 IR센터장 겸 대학원 겸임교수로 임명되었다. 일반적으로 한 직책에 대해 한 명을 임명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겸직으로 발령하는 경우는 있으나 4개 보직에 대해 겸보로 발령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인사발령이다. 임기는 1년이다. 권 교수의 부친은 권갑현 대종회 편집위원장이다.



## 부호장공파종회 2021년도 임원회의 개최



지난해 임원회의 모습.

지난해 임원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

부호장공파종회(회장 권영건)는 1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안동시 어가골길(泰  
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때 코로나  
방지对策을 위하여 참석한 임원 전원은 마스  
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로 인하여 오는 2월 1일 개최할 부호장공파종회 제104회 정  
기총회를 정일(定日)에 실시할 것인지 아  
니면 연기 또는 취소할 것인지 등을 논의  
하기 위하여 모였다. 1시간에 걸쳐서 토

의를 별인 결과 오는 2월 1일 개최할 정기  
총회는 코로나가 잠잠할 때까지 순연(順  
延) 하기로 하고 신임 회장이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나서 오는 2월 6일 일원정에서  
신, 구 회장단이 다시 만나 엄무 인계인수  
를 하기로 했다.

또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안을  
검토한 후 이 안들은 정기총회 때 상정하  
기로 했다.

이밖에 문종토지에 관하여 많은 의견  
들이 오고 가기도 했다.

〈보도부지 권영건〉

## 謹 賀 新 年

### 협의회장 권태호(충청북도 회장)



고 문 권길상(부산), 권동술(합천), 권영호(부산)

부 회 장 권숙동(안동회장), 권영하(영등포회장), 권승구(마포회장), 권성용(부산회장), 권정걸(안양회장), 권용기(대전회장), 권오협(제천회장), 권종희(상주회장)  
권충화(광주회장), 권기택(전주·완주회장), 권영창(영주회장), 권영복(산청회장)

감 사 권태형(마·창·진 회장), 권오협(충주회장)

간 사 권창구(원주회장)

권혁목 강릉회장	권태형 마·창·진회장	권주석 서천회장	권영창 영주회장	권용규 의성회장	권병섭 청송회장
권오홍 경산회장	권승구 마포회장	권병후 수원회장	권경환 영천회장	권기택 전주·완주회장	권기택 청주회장
권영길 경주회장	권태갑 문경회장	권준표 순천회장	권오영 예산회장	권재원 정읍회장	권태호 충북도회장
권충화 광주회장	권영근 밀양회장	권오정 시흥회장	권창용 예천회장	권인창 제주회장	권오협 충주회장
권영화 구미회장	권양호 봉화회장	권숙동 안동회장	권영국 옥천회장	권오협 제천회장	권혁수 칠곡회장
권경관 금산회장	권성용 부산회장	권정걸 안양회장	권희성 온양·아산회장	권천문 서울중구회장	권순종 통영회장
권대영 금천구회장	권혁진 부천회장	권현여 여주회장	권영순 용인회장	권영목 서울중랑구회장	권봉정 포항회장
권순옥 단양회장	권오식 분당회장	권영로 연천회장	권의호 울산회장	권성업 증평회장	권중관 하동회장
권공식 담양회장	권영복 산청회장	권성덕 영덕회장	권창구 원주회장	권재덕 진주회장	권사현 합천회장
권오섭 대구회장	권종희 상주회장	권영하 영등포회장	권병택 음성회장	권오섭 진천회장	권병규 횡성회장
권용기 대전회장	권상용 서남권회장	권경호 영양회장	권병기 의령회장	권계수 창녕회장	권용만 양평회장

전국 100만 족친 여러분! 어려웠던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순서는 지역명 가나다 순입니다.  
\*양평군 지역총회는 창립 준비 중이며 3~4월경에 발족할 예정입니다.

## 안동권씨 전국지역종친회장협의회 회장 권태호